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모의논술예시답안

인문 계열

[옹호]

제시문 (가)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는 장면으로서 ‘마음이 설레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었으나 조금도 슬프지 아니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양대군이 위선적인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나)는 수양대군이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조카님’의 부탁이 있었기에 왕좌를 받았고 그에 걸맞게 성군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한쪽은 적대적 시선이, 다른 한쪽은 우호적 시선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동일한 인물에 대한 시선의 차이는 (다)에서 소개된 스키마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다. 스키마는 인간이 타인과 사회 현상,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인지적 틀이므로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키마가 다르면 대상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은 기존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스키마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게 마련이다. 수양대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이광수와 김동인이라는 작가는 수양대군의 성격을 자신이 지닌 스키마에 의존하여 결정하였고 이를 각각의 작품으로 형상화한 결과 (가)와 (나)에서 확인되는 시선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제시문 (라)의 글쓴이는 전문성을 가진 재판관보다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판관은 전문지식 때문에 개념적 요소로 환원함으로써 증거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에 비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재판관의 전문지식은 (다)에서 말한 일종의 스키마라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 또한 스키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판단에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글쓴이는 범인과 피해자가 속한 신분을 고려하여 시민 보조자들을 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피고인이 일정 수의 배심원들을 기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배심원들이 지닌 스키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법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다면 증거를 판단하는 일은 상식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세 명보다는 열 명의 집단적 지성이 증거 판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현재도 일부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유지하게 하는 스키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유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비판] 1~3단락은 동일

이와 같은 논리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의 재판관이 저지를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실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으면 오히려 그 실상이나 맥락을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다수의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또한 법관들이 저지를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스키마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질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의 주장은 지극히 제한적인 효과만 낼 것으로 예상된다.